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3.8.(수) 10:00 이후	배포	
책임자	금융위 전자금융과장 김연준(02-2100-2970)	담당자	고선영 사무관 (02-2100-2974)	
	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담당장 최성일(02-3145-7420)		김용태 팀장 (02-3145-7425) 핀테크 지원센터 최은석 팀장 (031-8016-1169)	

제 목 : 「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」 개최

-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핀테크 랩, 정책금융기관,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「온오프라인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」를 구축
-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시행, 핀테크 지원의 시너지 창출

1. 회의 개요

- '17.3.8(수) 금융위원회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「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」를 개최하여,
-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권 핀테크 지원기관간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시행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음

< 「핀테크 지원기관 간담회」 개요 >

- 일시/장소 : '17.3.8.(수) 10:00 ~ 11:30, 금융위원회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- 금융위원회 위원장
 - 핀테크지원센터,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관계기관 기관장
 - 하나은행·우리은행·신한은행·한화생명·산은·기은·신보·기보·한국성장금융·금보원·신정원·금결원·코스콤·금융연수원·D-camp 등 15개 금융회사 및 금융 유관기관 기관장 등
- 논의안건 : 「온·오프라인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」 구축 방안

2.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-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
 - 정부와 업계가 하나가 되어 노력한 결과,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핀테크 창업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핀테크 인지도도 개선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
 - 글로벌 금융시장의 핀테크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, 미국, 영국 등 선도국과의 격차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언급
 - 이제 성장을 시작한 국내 핀테크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
- 정부는 「2단계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」을 마련 중이며, 이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정비할 계획임을 밝힘
 -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는 상담과 데모데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, 교육, 투자, 해외진출 등 다양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,
 - 금융회사, 정책금융기관 등의 지원프로그램의 경우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고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언급
 - 향후,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핀테크 랩, 정책금융기관 등이 온·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며,
 - 다양한 공동사업 시행을 통해,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였음
- 디지털 경제의 특징은 일정 분기점(tipping point)을 통과하면 기하급수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, 핀테크 육성에 착수한지 2년째 되는 올해가 이러한 분기점이라고 언급하면서,
 - 인터넷 전문은행이 곧 영업을 개시하고, 로보어드바이저와 오픈 플랫폼 연계 서비스도 상반기 중 출시될 것이며, 블록체인 파일럿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할 것이라고 하였음

3. 온·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 운영방안

(1) 추진 배경

①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 강화 필요성

- 지원센터 설립('15.3월) 이후 상담(520건), Demo Day 개최(20회) 등을 통해 금융회사와의 제휴, 해외시장 진출 등의 성과를 거둠

- ▶ AT솔루션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스마트폰 USIM에 전용인증서를 저장하여 별도 보안매체 없이 이용 가능한 'KB든든 간편인증' 서비스 출시
- ▶ 스케일체인은 신한은행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골드바 구매 교환증 및 보증서를 발급하는 '골드안심 서비스' 출시
- ▶ 런던 데모데이 개최를 통해 25만불 투자유치(자영테크)와 3,000만불 수출을 위한 공동 마케팅 계약 체결(에버스핀, 인터페이) 등 글로벌 진출 성과 발생

- 핀테크 기업들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'교육·투자·해외진출 지원' 등으로 확대해주시기를 희망하고 있으나(FGI, '16.8), 센터의 조직, 예산, 인력 구조* 상 센터 단독 시행에는 어려움이 있음

* 11개 협회·유관기관에서 예산 지원, 파견인력(상근 5명) 및 업무공간(약 40m) 부족 등

② 지원기관 간 유기적 협력 부재, 정보공유 미흡

-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, 정책금융기관, 유관기관 등에서 다양한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이 존재

- ① (금융회사) DreamLab(IBK), 위버핀테크랩(우리), 1Q Lab(하나), 핀테크HUB센터(KB), 퓨처스랩(신한지주), NH핀테크혁신센터(NH), DreamPlus63(한화생명) 등 운영
- ② (정책금융기관) 산은, 기은, 신보, 기보, 한국성장금융 등은 핀테크 관련 업종에 대해 대출, 투자 등 지원
- ③ (유관기관) 공동 오픈 API(금결원, 코스콤), 빅데이터 활용 지원(신정원), 보안 상담(금보원), 교육(금융연수원) 등 제공

- 기관별로 지원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체적 차원에서 연계지원 및 정보공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

→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기관간 온·오프라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핀테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

(2) 협력 네트워크 운영방안

①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참여기관들의 자율적인 협력에 기반하여 공동사업 추진

- (오프라인 연계) 핀테크 지원센터와 참여기관들 간에 협력 MOU 체결 → 4대 분야(①보육·성장, ②투자, ③교육, ④해외진출) 별로 공동사업 추진
- (온라인 연계) 핀테크 통합포털(fintechcenter.or.kr)에 참여기관들의 지원프로그램을 함께 게시 → 지원정보 종합창구 구축



② 지원기관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공 (①창업초기, ②사업화, ③해외진출 등)

① 창업초기 단계 : 예비창업자창업초기 기업 지원 강화

- 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*을 개최('17.4월)하여, 현재 우수 중견 기업 위주의 Demo Day를 예비창업자·창업초기 기업으로 확대

* 주요 금융회사, 보육기관, 투자자 등이 심사에 참여하여 평가·조언하고, 수상자는 해외 Demo Day 개최시 동반 등 우대

- 지원센터-협력기관 협업을 통해 공동으로 **핀테크 기업 성장 단계별 교육** 제공('17.하반기)

< (예) 성장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>

성장단계	교육 내용(기관)
창업초기	보안(금보원), 빅데이터 활용(신정원), 마케팅(D-camp), 금융감독 개괄(금감원) 등 초급 과정
사업화	자금지원(VC), 마케팅(D-camp), 보안(금보원), 빅데이터 활용(금보원, 신정원), 오픈 API 이용(금결원, 코스콤) 등 중급 과정
해외진출/상장	해외시장 지원 프로그램(KOTRA), 상장 절차(거래소), M&A(삼일회계법인) 등

- 핀테크 지원 관련 모든 기관 정보·내용·연락처를 일괄 검색할 수 있도록 **핀테크 통합포털 개편**('17.상반기)

② 사업화 단계 : 투자 및 기업 IR 연계

- 지원센터와 금융회사 랩이 함께 **금융권 공동 Demo Day***(3.30일)를 개최하여, 각 금융회사 랩에서 멘토링한 유망 기업의 기술 시연

* 금융회사 멘토링을 통해 일차적으로 기술이 검증된 만큼 성장사다리펀드 등 전문투자자, 다른 금융회사 등과의 제휴를 적극 지원

- 정책금융기관에 **핀테크 전담창구***를 개설하여 **원스탑 상담** 제공('17.3월)

* 산은·기은 : 투자, 용자 상담 / 신보·기보 : 투자, 보증 상담

- 정책금융기관에 **핫라인**을 개설하여 핀테크 기업이 지원센터 방문시 바로 정책금융기관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

-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**핀테크 기업 IR***을 지원하여 **핀테크 기업과 투자자간 소통·교류 기회** 마련

* ① **기업투자정보마당**(기은 포털)의 사업분야에 **핀테크 분야 신설**('17.상반기중),
 ② 한국성장금융·아산나눔재단에서 후원하는 **온라인 기업 IR**(\"졸지말고 투자하라\")에 핀테크 기업 10개 이상 등재 추진('17년중) 등

③ 해외진출 단계 : 해외 현지 육성 프로그램, 시장정보 제공

- **KIC* 실리콘밸리·중국 등이 운영하는 현지 육성 프로그램에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****

* 글로벌혁신센터(미래부 산하) : 실리콘밸리, 중국, 싱가포르, 뮌헨 등에서 현지 보육·성장을 위한 시설, 인력, 네트워크 등 보유

** KIC실리콘밸리의 현지화 프로그램('17.3~5월)에 1개사 참여 예정, 하반기 중 실리콘밸리와 베이징 프로그램에 약 5개사 이상 추가 참여 추진

- **국내·해외 Demo Day**를 통해 **유망 핀테크 기업의 기술·서비스를 소개하고 해외 핀테크 동향을 파악하는 기회** 제공

- 유럽·동남아 등 주요 해외시장에서 **해외 핀테크 Demo Day**를 개최('17년중 3회 예정)

- KOTRA Global Mobile Vision 행사*를 계기로 **해외 투자자** 등을 초청하여 **핀테크 Demo Day** 개최(서울, '17.10월)

* 미래부·산자부·KOTRA 주관으로 국내 ICT 산업 수출확대를 목적으로 해외바이어 500여개사 초청 및 수출상담회, 스타트업IR, 컨퍼런스 등 개최

- **KOTRA, KIC 등과 연계하여 해외 현지 핀테크 산업·기술 동향, 제도, 지원정책, 경쟁구도 등 조사·연구 시행**('17년중)

- 금융회사 해외진출시 **핀테크 기업과 협업, 동반진출** 확대

* 예: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디지털뱅크를 구축하면서 락인컴퍼니(보안), 코사인(이체), 샌드버드(메시징), 압컴퍼니(결제), 스케일체인(블록체인) 등과 사업제휴

4. 향후 계획

- ① **핀테크 지원센터 설립 2주년을 맞아 3.30일** 개최할 예정인 '금융권 공동 핀테크 Demo Day'에서 20개 참여기관간 **MOU 체결**

- ② **상기 일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**

[별첨] 금융위원장 모두발언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FSC	*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 http://www.fsc.go.kr	금융위원회 대변인 prfsc@korea.kr	 넓게 들었습니다 빠르게 알려겠습니다
--	--	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